

광양시 예산 확보하고도 첫삽도 못든 사업 12개나

70개 사업 집행률 50% 못 미쳐

적기 투자 안돼 지역 발전 지체

광양시가 올 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사업이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억원 이상 사업 중 30% 이하로 진행된 사업도 4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시가 지역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내세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적기에 예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발전과 성장이 지체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비판도 나온다.

◇집행실적 '0%'=광양시가 올해 편성해놓은 예산 가운데 5억원 이상 시·도립사업은 모두 141개로, 관련 예산 규모만 3554억79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12개 시·도립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하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기 집행이 못하고 지자체 계좌에서 묵혀두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 열린 '2017 주요시·도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보고된 집행률이 '0%'인 12개 사업 예산만 145억원에 이른다.

광양시 봉강면 광양축곡전용구장 정비사업의 경우 6억4300만원을 편성하고도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조잔디 조달 구매 기간 등이 맞물리면서 여태껏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광양시 광양읍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는 국·시비로 각각 10억원씩 확보해놓은 20억원을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광양시 설명이다.

태인동 일대 태인체육공원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사유지(17필지)에 대한 보상(43억8600만원)을 완료하고도 국비와 함께 매칭해 확보하는 시비(1억4300만원)를 확보하지 못해 여태껏 삽을 못 든 상태다.

하지만 추진이 가능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30% 이하 사업도 33개나 돼=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141개 사업 중 집행률이 '100%'인 사업은 37개에 불과했다. 30% 이하가 33개에 달했고 50% 이하도 25개나 됐다. 결국 70개 사업의 집행률이 50%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고로쇠 수액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사업은 이전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6억4000만원의 사업비의 0.6%만 쓰여졌다.

광양읍 서천면 일대 조성하는 광양볼고기 파크는 올해 예산으로 시비 10억1000만원 등 15억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집

■ 2017년 5억원 이상 시·도립사업 추진현황

(9월 7일 현재, 단위:백만원)

집행비율	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집행액
합계	141	355.479	100%	154.688
0%	12	14.505	4.1%	-
30%이하	33	105.709	29.7%	16.481
50%이하	25	88.233	24.8%	37.889
70%이하	35	93.150	26.2%	54.347
100%미만	33	50.116	14.1%	42.205
100%	3	3.766	1.1%	3.766

■ 집행률 0% 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현액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	2,000
광양 축곡 전용구장 정비사업	643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	1,023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사업	1,800
육아 종합 지원센터 설치	700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1,700
마산마을 진입로 확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500
해동지구 재해예방안전 정비사업	1,000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3,000
군도11호선(광양구례간) 확포장공사	546
목성지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750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LED가로등 교체	843
12개사업	14.505

행률은 1.8%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 광양동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했지만 증축 부지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확보한 국비(5억7300만원)를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공사는 총 사업비 55억원 중 올해 18억50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0.8%에 머물고 있다. 증축부지 보상협회가 길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관련 부지를 수용해 추진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2016~2019년까지 180억을 들여 길호대교~금호대교 일대 9.4km 구간에 경관보도교·야간경관조명·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광양시는 올 해 33억4600만원을 편성, 배정했지만 10.5%만 집행한 상태다. 2단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다음달 말 끝나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배정 예산을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주민 반대·보상·부지 선정 등 사업 지연 요인들을 미리 관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 재정 효율성을 감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부서의 집행 능력을 엄격하게 점검하는 등 조치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집행이 더딘 시설사업들에 대한 부진 사유와 문제점,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집행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양 연간 관광객 300만명 유치 팔 걷어붙였다



섬진강



백운산

백운산·섬진강 테마 관광자원 발굴 코레일과 협약 맺고 상품개발 나서 둘레길·생태탐방로·캠핑장 조성키로

광양시가 연간 관광객 300만명을 목표로 관광 상품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백운산과 섬진강을 테마로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투자시설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연간 관광객 300만명 달성을 위한 권역별 관광명소화 사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광양의 관광지 방문객은 ▲2014년 297만3075명 ▲2015년 234만9060명 ▲2016년 238만 9086명 등으로 300만명을 못 넘어서는 실정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월 현재 167만83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늘어났지만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부정적이다.

광양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시는 당장, 지난 20일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맺고 당일형과 숙박형 등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KTX에 관광객을 태워 순천역까지 온 뒤 버스를 이용해 광양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상품으로, 9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3500명 이상이 광양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산과 섬진강을 대표 관광지로 키우는 관광 명소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백운산 성불계곡에는 둘레길을, 동곡계곡에는 수변공원을 만든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편의시설도 확충한다. 단계적으로 여차계곡과



느랭이골자연휴양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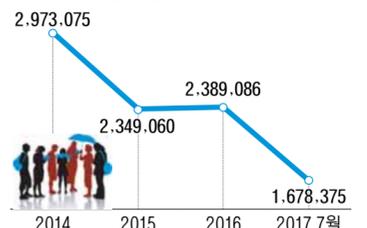


전어



광양 볼고기

■ 광양시 관광지 방문객 추이



금천계곡에 생태탐방로와 캠핑장을 조성한다.

섬진강권역인 망덕포구와 배알도에는 섬진강갯길과 나루터복원, 짚아이어, 캠핑장, 자전거 놀이터 등을 만든다. 도심권역에는 이순신대교 주변으로 전망대, 경관보도교 설치 등 해변관광 테마거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든다는 구상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조성과 관련, 이순신대교와 망덕포구, 배알도해변공원, 구봉산전망대 등을 아우르는 명품여행길도 추진한다.

민간투자 자본을 이용한 관광시설 유치활동도 벌인다. 민간이 조성한 와인동굴과 느랭이골자연휴양림은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새로운 명소가 됐다. LFS케어 테라스를 광양편이 애초 약속했던 지역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이순신대교 등 산업자원과 백운산과 섬진강, 마하 등 자연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광양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숯불구이축제 때 '숲도락 체험 투어' 즐기세요

숲해설가와 함께 자연관찰·오감 체험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지역 대표 축제로 꼽힌다. 그만큼 볼거리·즐거거리도 적지 않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광양읍 서천면에서 개최되는 '제 16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때 진행된다. '아이~좋아라, 숯불구이 숲도락(道樂)' 숲

해설가와 함께 자연관찰·오감 체험 투어에 눈길을 끄는 행사다.

이날 투어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후 2시 축제장에서 출발해 진상면 구시소 오로대와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를 거쳐 축제장으로 돌아오는 1시간 30분짜리 코스다.

숯겨진 비경 구시소와 오로대의 신비한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을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들

수 있다.

또 숲 해설가와 함께 아이와 부모가 숲에서 오감체험놀이와 자연관찰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에서 마술공연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1회당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성인은 1만원, 14세 미만의 경우 5000원의 이용요금을 낸다. 문의 061-795-3344.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062-531-3530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 잔 엔디니와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찢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혜 제10-0562035호
특혜 제10-1097784호
특혜 제10-0548189호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